

기부·결혼·일일코치...스토브리그가 더 바쁜 KIA

사랑의 쌀 3160kg 전달
고영창·정상욱·백용환 화촉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경매·모금 등 통해 기부금
최형우 모교 꿈나무 야구캠프

KIA 타이거즈의 뜨거웠던 '1박 2일'이 었다.

마무리캠프가 끝난 뒤 휴식기를 보내고 있던 '호랑이 군단'이 7일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KIA 선수들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임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었다.

선수들은 KIA 구단이 올 시즌 운영한 물품 보관함 수익금에 자체 예산 그리고 구단 후원업체 키스코의 후원금을 모아 준비한 3160kg의 쌀을 전달한 뒤, 웃을 갈아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오후 12시 투수 고영창이 결혼식을 올렸고, 오후 4시에는 정상욱 트레이닝 코치가 화촉을 밝혔다.

해가 진 뒤 선수들은 다시 유니폼을 챙겨입었다.

광주 상무지구 밀탐에서 낙상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가 열리면서 선수들의 바쁜 걸음은 계속됐

다. 무상 트레이드와 2차 드래프트로 새 식구가 된 투수 홍상삼과 변진수 등도 빨간 점퍼 차림으로 팬들 앞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FA 김선빈도 아들과 손님으로 행사장을 찾았고, A형 독감에 걸려 입원 중인 안치훈은 전화로 마음을 전해줬다.

새신랑 고영창은 '깜짝 손님'이 됐다. 고영창은 피로연이 끝난 뒤 행사장을 둘러 동료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선 일일호프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예정됐던 자정을 넘겨 오전 1시 30분까지 계속됐다. 경매와 모금 등을 통해 기부금도 더해졌다.

올 시즌 KIA 외야의 '빛'이 된 이창진의 배트가 경매를 통해 75만원에 판매됐고, '국가대표' 문경찬의 태극마크 유니폼도 40만원에 낙찰됐다.

KIA 서포터즈인 'KIA Tigers Fan Team' 회원들은 차영화 코치의 쾌유를 기원하며, 1만원씩 총 103만원을 모아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긴 하루를 보낸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의 동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포수 백용환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KIA 선수들은 이날



KIA타이거즈의 유민상(오른쪽부터), 문경찬, 전상현이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밀탐에서 진행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에서 유니폼 경매를 하고 있다.

오전 단체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옛 동료'의 결혼식도 이어졌다. 7일 SK 이흥구에 이어 8일에는 SK 노수광도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선수들은 바쁜 주말을 보냈다.

한편 최형우는 지난 6일 모교인 전주진보초를 찾아 야구캠프를 진행했다. 최형우는 진북초, 군산남초, 군산중앙초, 군산신평초 야구부 학생들의 '일일코치'가 됐다.

유민상, 최원준, 임기영, 이민우, 이창진 등 KIA 후배들은 물론 박해민, 박계범(이상 삼성)도 최형우의 야구캠프에 참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KBO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

KBO 2019시즌을 갈무리할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9일 열린다. '황금 장갑'을 들어 올릴 선수들과 함께 시상식을 빛낼 기록에도 관심이 쏠린다.

투타에서 '3관왕'에 오른 두산 린드블럼과 NC 양의지는 2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린드블럼은 지난해 득표수 245표, 득표율 70.2%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올해도 린드블럼의 수상이 유력하다.

그는 2019시즌 다승(20승)과 승률(0.870), 탈삼진(189개) 부문 1위를 싹쓸이하면서 정규시즌 MVP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시상식에서도 린드블럼의 이름이 불리는데, 1998·1999년 현대정민팀에 이어 20년 만에 투수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이 작성된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린드블럼은 골든글러브 시상식 참가를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두산에서 NC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양의지는 새로운 팀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뒤,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의지는 올 시즌 타율(0.354)과 장타율(0.574), 출루율(0.438)에서 3관왕에 오르며 NC를 가을야구로 이끌었다.

지난해 양의지는 최다 득표수(331표)와 득표율(94.8%)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올해도 양의지가 최다 득표에 성공하면 KBO리그 역대 2번째이자 1993·1994년 해태 이종범에 이어 25년 만에 2년 연속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선수가 된다.

KBO리그 '최고의 거포' 키움 박병호는 5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박병호가 5번째 수상에 성공하면, 강정호를 누르고 구단 단독 최다 수상 선수가 된다.

최다 득표 기록 경신 여부도 관심사다. 2007년 두산 이종욱은 외야수 부문에서 총 350표를 획득하며 역대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010년 롯데 홍성흔이 344표로 근접했지만 12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다.

최고 득표율은 2002년 삼성 마해영(지명타자)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99.3%를 기록한 이후, 17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으랏차차 보성...전국 역도 동호인 한마당 200명 참가 성료

전국 역도 동호인들의 한마당이 보성에서 펼쳐졌다.

제22회 역도동호인 연말대회가 전국에서 2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8일 보성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진>

대회는 전국역도동호회가 주최하고 전남역도연맹·보성군역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남체육회와 보성군이 후원했다.

경기는 남녀 각각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뉘어 열렸다. 남자 청년부는 61kg, 67kg, 73kg, 81kg, 89kg, 96kg, +96kg 7체급, 남자 장년부는 67kg, 73kg, 81kg, +81kg 4체급으로 열렸다. 여자 청년부는 55kg, 59kg, 64kg, 71kg, +71kg 5체급, 여자 장년부는 55kg, 59kg, 64kg, +64kg 4체급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인기상, 다수출전상, 동반출전커플상, 베스트 드레싱상도 시상했다.

매년 12월 보성에서 열리는 역도동호인 연말 대회는 탄탄한 자리를 잡았다. 많은 참가자가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선착순 200명까지만 참가 선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보성 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은 이유는 보성군청 엘리트팀을 지도하며 생활체육으로서 역도를 보급하는 김용철 보성군청역도팀 감독의 영향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보성다목적체육관장의 인프라, 그리고 남도의 맛 때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회를 준비한 김용철 감독은 "올해는 남녀부 경기를 교차 진행했고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타 대회와 차별화하여 역정을 됐다"며 "일반인들이 역도를 더 친근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추격했던 부산 K리그서 다시 만난다

승강 플레이오프서

경남 꺾고 1부 무대로

광주FC를 끈질기게 추격했던 부산아이파크가 1부 무대로 간다.

부산이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원큐 K리그 2019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앞선 홈경기에서 0-0으로 비졌던 부산은 원정에서 두 골을 넣으며 1·2차전 합계 2-0으로 경남을 제압하고 승자가 됐다. 이로써 부산은 경남을 K리그2로 끌어내리고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됐다. 5년 만의 1부리그 복귀다.

부산은 2015년 1부리그에서 11위에 그친 뒤 승강FC와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제 강등됐다.

이후 2016시즌에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승격 도전이 멈추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연달아 승강 PO에 진출했지만 각각 상주상무와 FC서울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일렉트 승격을 목표로 했던 올 시즌에는 광주 추격에 실패하면서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FC안양을 1-0으로 꺾은 부산은 3년 연속 치른 승강PO에서 마침내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부산이 전반전 8개의 슈팅을 날리며 경남을 압박했다. 몇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던 노보트니가 전반 41분 역승 상황에서 골키퍼와 마주하고 슈팅을 날렸지만 이범수의 왼손에 막혔다.

후반에도 부산이 아쉬운 탄성을 쏟았다. 후반 12분 이동준이 하프라인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잡아 발리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맞으면서 땅을 쳤다.

하지만 후반 26분 두 팀의 운명을 가른 휘슬이 울렸다.

부산 역승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나온 디에고의 크로스가 경남 이재명의 팔에 걸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비디오 판독에도 의심이 유지되면서 호물로가 키커로 섰다. 호물로는 골키퍼를 속이고 왼발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부산의 승격을 자축하는 두 번째 골이 터졌다. 디에고의 크로스를 받은 노보트니가 헤더로 경남 골망을 흔들며 하면서 길었던 승격 여정을 끝냈다.

이와 함께 K리그2 1위 광주와 2위 부산은 2020시즌 K리그1 무대에서 다시 대결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행안내

12월1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11일(수) 경남 거제도 산방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14일(토)
▲광주호산회 12월14일(토) 옥정호봉어섬조방 물안개길 트레킹,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2월15일(일)
▲광주전남산악회 12월 15일(일) 부안 우금산 삼레봉(650m), 월드컵주차장 07:00, 온진각앞, 양동시장, 광주역 07:30, 두암동 홈플러스 07:40, 농산물공판장 *다음카페 광주전남산악회 ☎ 010 4615-5810, 010 5378 5702

▲한길산악회 12월 15일(일) 전남 고흥 방장산 산행, 상무정 07:00 무라사 07:10 광주역(e-마트 편의점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

07:40 * 다음카페 :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2월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18일(수) 전북 진안 덕대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 21일(토) 전남 담양 양마루길및 비내산 송년산행, 봉선동 롯데슈퍼앞 7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7시20분, 염주체육관 7시30분, 한국병원앞

7시40분, 문예회관 후문 7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시 *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광주호산회 12월21일(토) 전주 모악산,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9

12월22일(일)
▲광주자연보존답사회 12월22일(일) 연화산(경남 고성), 06:40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홈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존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2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25일(수) 전남 나주 다도식산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28일(토)
▲광주호산회 12월28일(토) 송년산행 화순운주사 천불천탑 및 외불 산행,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446
병역법위반

• 피고인 : 오경태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년 11월 2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차용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 시대의 얼굴	12.5.(목)~31.(화)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19.(목)~ 21.(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9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12.26.(목)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LOTTE CINEMA | 총정리

1관	겨울왕국 2
2관	포드 V 페라리
3관	겨울왕국 2, 리스트 크리스마스
4관	리스트 크리스마스
5관	블랙데니
6관	겨울왕국 2, 크롤
9관	김쪽같은 그녀
7관	씨네커플 나를 찾아줘 극장판 타이오지마 버스타-블랙어펠트의 귀환
8관	씨네커플 나이비스 아웃, 크롤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